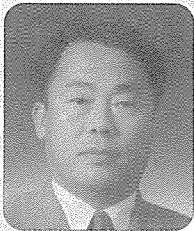


# 돈가 하락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자



이 병 모 부회장  
(사)대한양돈협회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개에 이르기까지 수입축산물의 압박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도를 더하고 있지만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국내 양돈산업의 절대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약 95만두의 모돈으로 1천3백50만두의 도축두수를 기록했다. MSY 14두로 주요 돈육수출국인 덴마크와 프랑스가 1백15만두의 모돈으로 2천5백여만두를 도축, 21두의 MSY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 MSY 차이가 무려 7두에 달하고 있는 등 각종 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돼지소모성질환의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양돈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 추세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결코 과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국제 사료시장의 동향을 살펴 보더라도 향후 미산 옥수수는 공급량을 초과하는 수요량의 증가세이며, 특히 세계적으로 옥수수를 이용한 대체에너지인 에탄올 생산의 급증으로 인하여 미국내 옥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옥수수 가격은 강세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운송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즉, 내년에는 돈가는 하락하고 사료비 등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산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책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농장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모돈 사육두수가 늘어남에도 출하두수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는 소

## 돈가 하락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자

모성 질환의 영향이 크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돈산업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생산성을 회복, 더욱 향상시키되 고품질의 차별화된 돈육 생산과 생산기반을 유지, 확대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양돈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소모성질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돈 및 자돈 관리와 시설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농장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둘째, 농장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자.

양돈농가들은 농장의 생산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물론 생산성 향상과 질병극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선과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농장 경영 컨설팅을 통해 계획적인 종합계획과 농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쓰이고 있는 생산비 등의 경영 허실부분을 찾아내 개선해야겠다.

### 셋째, 양돈농가들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돈가 하락을 예상해, 무분별한 출하를 한다면 돈가가 급락하게 되고 양돈농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 양돈농가들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돼지고기 생산, 친환경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가야 할 것이다. 돈가 하락 시기를 대비해 계획 출하를 통한 국내시장 돈육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해야겠다.

### 마지막으로, 양돈농가들은 경영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업에는 좋은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하나같이 그렇다고 대답할만한 당연한 사실이다.

양돈 농가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양돈장 경영에 임해야겠다. 또한, 경영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조직화하고 직원들의 작업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며 양돈장의 위생수준을 더욱 강화해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시기를 대비하고, 좋은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하나로 뭉쳐 한국 양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전국 양돈농가들의 건투를 빈다. **양돈**